오늘의 날씨와 생활

11월 14일 목요일 음 10월 18일 (10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며 아침까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산지에는 눈이 날릴 수도 있겠다. 아침 기온은 10~12℃, 낮 최고 기온은 13~15℃에 머물며 쌀쌀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2.0~4.0m로 일겠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20%	제 주	20%
20%	성 산	20%
20%	고 산	20%
20%	서귀포	20%

	해뜸 07:04	달뜸 18:55
	해짐 17:32	달짐 08:21
물때	만조 11:41	간조 05:29
	23:26	18:15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8/18℃
모레	맑음	12/22℃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관심	보통

월드뉴스

베네치아 53년만의 최악 홍수… '재난 상황'

1200년 된 산마르코성당 침수

아이를 업고 침수된 산마르코 광장을 걷는 여인.

이탈리아 전역에 큰 비가 쏟아져 북부 수상 도시 베네치아가 53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로이터·dpa통신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네치아시 당국은 베네치아의 조수 수위가 12일 오후(현지시간) 기준으로 187㎝까지 치솟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조수 수위가 194㎝에 육박했던 1966년 이후 5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루이지 브루냐로 베네치아 시장은 '재난'을 선포하며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극적인 상황"이라며 "(홍수의) 비용이 높은 만큼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다. 홍수는 기후변화의 결과"라고 트위터로 전했다.

조수 상승으로 베네치아 도시 대부분이 침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9세기에 세워진 이후 이날 전까지 1200여년간 단 5번만 침수된 명소 산마르코대성당에도 이날 바닷물이 들어차 1m 이상 침수됐다.

비잔틴 양식의 대표건축물인 이 성당이 가장 최근에 침수된 지난해 10월, 관련 당국은 성당이 하루 만에 20년치 손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바다를 낀 베네치아에서 조수 수위가 100~120㎝를 오르내리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화돼 있다. 하지만 120㎝를 넘어가면 도시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 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김기현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담론

체육계 변화와 혁신의 바람

정 찬 식
제주도체육회 운영부장

'체육계 통합의 바람'으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단체가 하나의 단체로 새롭게 출범했다. 3년 전 일이다. 그 '바람'의 영향인지 올해 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공포로 11월부터 본격적인 민간체육회장 '선거 바람'이 불고 있다. 체육단체에 불어 닥친 '바람'이다.

신년 초 올림피언의 '미투'로 체육계의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차원의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혁신위원회는 7차에 걸쳐 체육 전반의 혁신을 권고했다. 여기에 다시 대한체육회가 출범시킨 혁신위에서는 스포츠 시스템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체육계에 일고 있는 '혁신의 바람'이다.

각각의 '바람'을 그냥 부는 바람(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흐름의 기운이나 기원(氣, 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제대로 살펴보고 방향을 잡아야 할 듯싶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두 갈래로 나눠져 있던 체육단체 통합의 취지는 두 부문 간 상호 선순환 시스템 구축과 균형발전이었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스포츠 4대악 척결과 병행해 물리적 측면이 강했다. 때문에 상호 융합이 순기능의 정제물이 아니라 뜻하지 않은 역기능의 불순물 발생을 우려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화학적 결합과 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원화 구조에서의 부조리와 통합의 순기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정착화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는 터에 체육회의 자율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이유로 지자체장과 의원은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다. 올해 1월에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 15일까지 법으로는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끝내도록 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이에 해당된다. 각각의 지역실정과 여건이 다름에도 1년이라는 법정 기간을 정해 놓고 있어 '선거 바람'과 그 후유증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만만치 않다.

스포츠계의 혁신 권고도 새 기운을 불어넣고 싹을 키워내는 동풍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권고한 일부 사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마찰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일례로 한국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대한체육회는 선수인권보호, 지도자 처우개선,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등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를 하는 반면에 전국(소년)체전 구조개편, 주중대회 개최 금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개편, 대한체육회-KOC분리 등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기류가 다르고 불안한 상황에서는 돌풍이 일 수 있고, 그 돌풍으로 예기치 않은 상처와 피해가 생겨난다. 때문에 변화와 혁신이 일순간의 돌풍이 돼서는 안 된다. 그 기류와 바람이 서로 상충되거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돌풍을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갈등과 고민을 풀어 넣고 '어쨌든 바람은 불어'로 끝을 맺어 버리는 대중가요가 돼서는 더욱 안 될 일이다.

체육계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찌든 여름날의 흔탁한 구름을 걷어내 파란 가을 하늘을 드러내도록 하고 풍성한 햇살로 알토란 같은 결실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열린마당

골목상권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김 혜 미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우리 동네 골목상점이나 전통시장을 일주일에 몇 회나 이용하는지 생각해 보자. 대부분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집 밖을 나서면 보이던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의 점포수가 많이 사라진 이유일 것이다. 대형마트의 등장과 인터넷쇼핑몰 확산 등 소비자들의 소비형태 변화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동네상권이 소비자 이용횟수 및 매출감소로 해가 거듭될수록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이용횟수를 늘려, 상인들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소확행 소비자가 급부상하고 있다. 소확행이란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로 바쁜 이 시대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으려는 심리를 담은 신조어다. 그렇다면, 골목상권, 전통시장에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린 시절 어머니와 동네슈퍼나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의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상인들의 인심과 그 분위기가 바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건입동에서는 '소확행 점포를 통한 골목상권 행복 찾기' 라는 시책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소확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으로의 유입정책을 펼치고 있다. 각종 축제 및 행사 등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자생단체와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관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적극 앞장서 지역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악화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경제시장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동네상권을 민·관의 단합된 노력으로 극복해야 한다. 부디, 이 글을 읽고 난 독자들도 골목상권 이용에 한 발 앞서 나가기를 희망해 본다.

'백익무해' 탄소포인트제

최 세 훈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우리는 TV와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탄소배출에 따른 온실효과로 인한 여러 폐해들을 보고 듣는다.

청정 제주에 살아서일까? 체감하기에 다소 현실감이 떨어지는 얘기처럼 들리는 건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온실효과로 인한 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우리의 체감보다 우리의 삶에 훨씬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쉽게는 잦은 태풍, 홍수, 폭염, 가뭄 등이 불규칙적으로 빈도 높게 발생해 날씨나 기후에 대한 예측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대처하지 못한 자연재해는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안겨 준다. 또한 통상 열대 기후에서 발견되는 해충이나 세균 등이 창궐해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우리는 현재의 우리와 이후의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줄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바로 '탄소포인트제'다. 탄소포인트제는 일상에서 가장 쉬운 형태로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라 생각한다. 어려우면 실천하기 어렵다. 하지만 탄소포인트제는 실천이 쉽다.

가령, 무심히 꽂아 둔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는다든가, 양치할 때 컵을 사용한다든가 하면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에너지 절약 실적에 따라 연 2회 최대 1만원까지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그야말로 임도 보고 뽕도 따는 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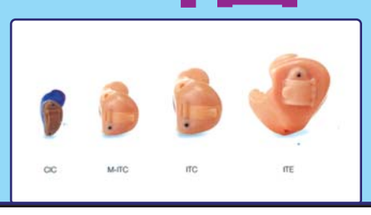
가입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www.cpoint.or.kr)를 방문해 가입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백익무해 탄소포인트제. 구우일모(九牛一毛)보다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심정으로 나부터 가입하고 실천해 보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소리샘 원장 송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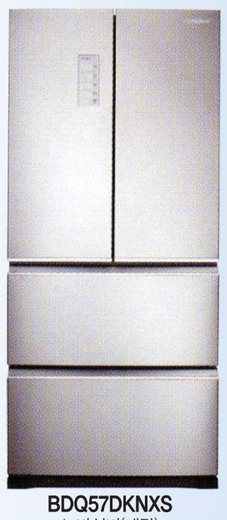
잘 안들리십니까?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와 함께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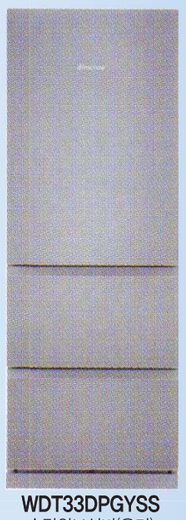


1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2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에 적합한 올바른 보청기 상담및 A/S를 책임집니다.
신경성, 노인성,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 상담 가능

본 광고는 사전심의필 2007-GN1-25-0147
SORISEM 소리샘 보청기
제주시 삼도1동 507-3(2층)
TEL.753-5347

오리지널의 공식대로 The Original dimchae°
위니아 딤채 전품목 할인행사
딤채는 각방마다 냉각기가 하나씩!
업계 유일 4by4 룸별 독립냉각
하나의 딤채로 네대의 딤채를!
(주)대유위니아 제주점
전시장 : 제주시 북성로 27(삼도이동)
T. 721-9095~6, 755-9095, F. 755-9096


BDQ57DKNXS
노바실버(메탈)


WDT33DPGYSS
솔릭위브실버(유리)

BDL22DJSHS
헤이즈실버

BDL18DETRSS
루센트실버

오리지널 딤채°
취급품목
김치냉장고 딤채°
프리미엄 냉장고 PRAUD°
에어콘 (가정용, 업소용, 천장형)
냉·난방기 (초절전인버터방식, 히트펌프식)
딤채° 순 (IH전기압력밥솥)
에어워셔 (가습, 제습, 제균, 청정)
세탁기, 건조기
제습기, 공기청정기